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이자
동아일보 기자인
임현석 동문을
만나보았다.



행복기숙사 선발 거리 점수 부여 기준, 문제점과 공정한 선발 기준의 방향은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대학주보



지난 22일 입학주간 선포식이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서 열렸다.

(사진=김나형 기자)

입학주간 선포식 ‘경희의 이름으로’ 개최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주간 선포식(경희의 이름으로)가 열렸다. 양 캠퍼스(양 캠) 총학생회(총학)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하루 49명의 신입생이 참가하는 대면 방식과 온라인 송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입학주간 선포식은 ▲응원단 축하공연 ▲학생 명예선언 낭독 ▲단과대학 학생대표자 및 총학생회 소개 ▲총장축사 ▲입학주간 선포 ▲포스트모던음악학과/연극영화과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면 행사 진행을 위한 스튜디오는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 마련됐으며 양 캠 총학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작년 입학주간 선포식은 전면 비대면으로 치러졌지만, 올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부분 대면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하루 49명의 신입생이 양 일에 걸쳐 참가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대면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했다”며 “대면 행사를 통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컸다”고 전했다. 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포식인데, 코로나 상황 임에도 선포식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면 시대에 이뤄졌던 선배와 후배 사이의 연결고리를 비대면 사회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군태 총장은 직접 행사에 참여해 신입생을 맞이했다. 한 총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며 “소프트웨어의 깊이를 모르면 사회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경희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실히 습득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통능력, 창의력, 상상력 등을 교양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통해서 마음껏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선포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양 캠 총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는 접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준비했지만,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준비하기보단 (서울캠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이번 행사의 많은 부분을 국제캠 총학에서 준비했지만, 국제캠과 신입생 환영사를 함께 작성했다”며 “신입생 환영사에서 3만 5천 학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양 캠퍼스 학생들의 이원화 캠퍼스 인식을 개선하고,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양 캠 총학은 입학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게더타운 ▲스탬프투어 등 여러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신입생들은 게더타운을 통해 2022년 진행되는 행사 및 학사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게더타운이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으로, 이는 비대면 사회에서 주목받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 맵과 단과대 맵을 만들었고, 링크 연결을 통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령

면 〈편집장〉
이태영(행정학 2019)
〈서울뉴스팀장〉
이현정(국어국문학 2019)
〈국제뉴스팀장〉
김경민(국제학 2017)
〈기획팀장〉
한진석(한의학 2018)

명 〈편집장〉
김경민(국제학 2017)
〈뉴스팀장〉
이동건(행정학 2021)
〈미디어팀장〉
천민주(사회학 2020)
〈기획팀장〉
박소은(미디어학 2021)

개정된 재수강제도 적용된다

이수현 기자 dltingus011208@knu.ac.kr

오는 1학기부터 변경된 재수강제도가 적용된다. 최초 성적 취득 후 4개 학기에 이어지는 계절학기까지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수료 및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 취득성적이 F등급일 경우 마지막 학기에는 재수강이 허용된다.

기존 재수강제도에 따르면 학기 당 허용 과목 수는 2과목 이내로 최초 성적 취득 후 4개 학기 이내에만 재수강 신청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20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경우 22학년도 1학기 이내에만 재수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재수강제도로 4개 학기에 이어지는 계절학기까지 재수강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재수강 신청 가능 기간인 4개 학기에 방학 기간이 추가된 셈이다. 단, 휴·복학으로 인해 4번째 정규학기와 계절학기가 단절될 때는 재수강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수강 신청 시기 경과로 수료 및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의 재수강이 불가한 문제가 해결됐다. 재수강 신청 시기인 4개 학기 가지나도 졸업 필수 과목의 성적이 F일 경우에는 수업 연한 마지막 학기에 한해 재수강이 허용된다. 수업 연한 마지막 학기는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일반계열은 8학기(4학년 2학기), 의학계열은 12학기(본과 4학년 2학기)를 의미한다.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가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가 된다.

기존 재수강제도는 18학년도 수강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확정된 뒤, 19학년도부터 적용된 제도이다. 이 때 확정된 재수강 가능 학점과 취득 성적 상한 점수는 22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2면으로 계속